

콩팥(신장)과 오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디서나 의학에 관한 화제가 자주 등장한다. 누구한테 들었는지 엉터리같은 소리도 나오는데 이때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몫 끼려고 말참견을 하게 된다.

어느 술자리에서 신장을 떼낸 경험 이 있다는 사람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중요한 오물처리장이 고장났는데 신장속은 모세관(毛細管)이 엉켜져

×

×

×

신장은 체조를 할때 손을 허리에 얹으라고 하여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보다 조금 위로 등허리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 활동은 혈액속의 필요없는 성분과 몸속에 남아 있으면 곤란한 성분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것임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신장동맥의 끝부분인 모세혈관은 신장속에서 실처럼 얽혀 콩모양을 이루고 이것이 포만찌주머니라는 포대에 싸여 있다. 또 포만찌주머니에서는 뇨세관(尿管)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야. 혈액이 모세혈관을 흐르는 동안 혈액속의 불필요한 것을 수분과 같이 걸러내고 이것이 모여 오줌이 된다. 오줌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쯤 나오는데 나는 반도 안나오니 큰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자기는 의사라고 하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가 틀렸을까?

나와 다발뭉음을 이루어 뇨관(尿管)과 연결되어 있다.

포만찌주머니안에서 걸러진 액체는 오줌이 아니고 원뇨(原尿)라 하는데 100만개의 주머니에서 1분간에 흐르는 혈액 1.2리터의 10분의 1인 120cc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1일애 180리터의 원뇨가 만들어 지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오줌을 누고 있다. 이는 원뇨의 1%도 안되는 것이다. 원뇨와 오줌을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틀리고 있다.